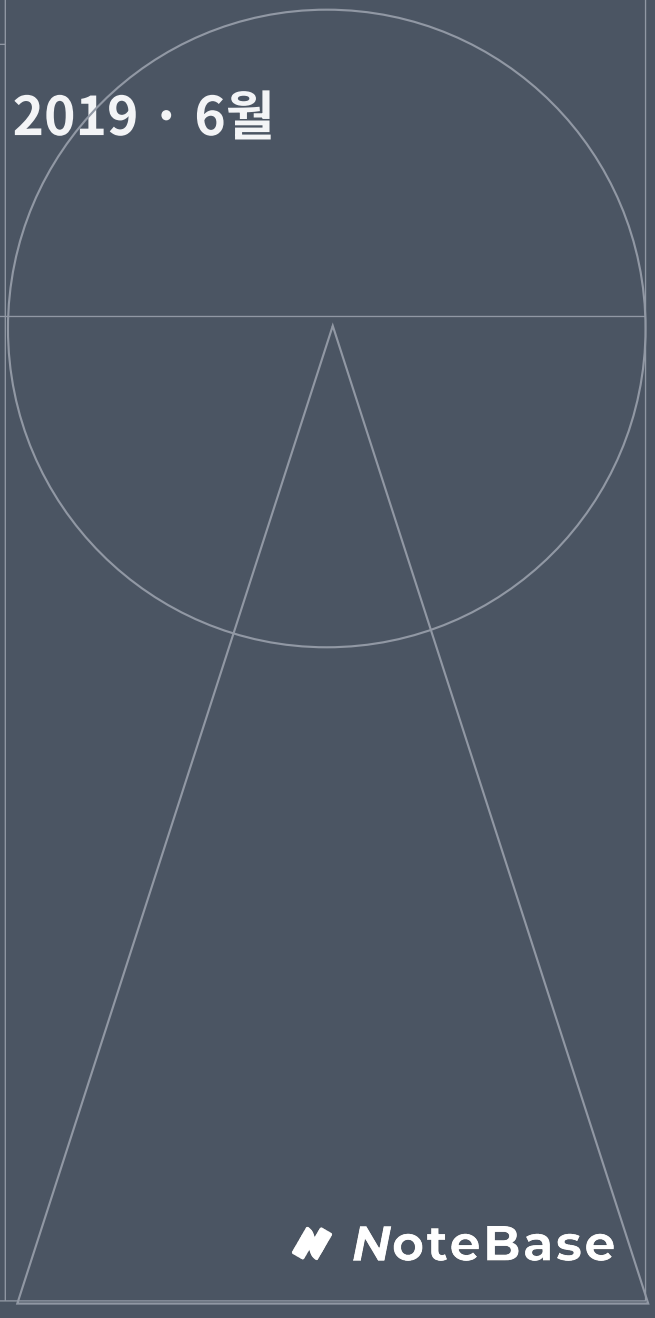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9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9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9 · 6월

문 1.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① 그는 밥도 안 먹고 일만 한다.

② 몸은 아파도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다.

③ 그는 그녀에게 물만 주었다.

④ 고향의 사투리까지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마음만은'은 '날아갈 것 같다'의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이다. 다른 밑줄 표현들은 각각 먹거나 주거나 싫어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도', '만', '은', '까지' 같은 보조사는 특별한 뜻을 더하므로, 보조사의 모양만으로 문장 성분을 결정할 수 없다. 해당 말이 서술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피고, 문맥에 맞는 격 조사를 넣어 보면 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밥도' — 목적어: '밥'은 '먹다'라는 행위의 대상이다. '밥을 안 먹고'처럼 목적격 조사 '을'로 바꾸어도 그 관계가 유지되므로, '도'가 붙은 '밥도'는 **목적어**이다.

② '마음만은' — 주어: '마음'은 '날아갈 것 같다'라는 상태를 서술하는 대상, 곧 그 서술의 주체이다. '마음이 날아갈 것 같다'로 바꾸어 보면 **주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사 '만'과 '은'이 붙어도 이 문장 성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③ '물만' — 목적어: '물'은 '주었다'라는 행위에서 건네는 대상이다. '그녀에게'가 받는 상대를 나타내는 데 비해, '물만'은 '물을 주었다'처럼 **무엇을 주었는지**를 나타내므로 목적어이다.

④ '사투리까지' — 목적어: '사투리'는 '싫어할'의 대상이다. '고향의 사투리를 싫어할'처럼 목적격 조사 '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까지'가 붙은 '사투리까지'는 **목적어**이다.

①·③·④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목적어이고, ②의 '마음만은'만 주어이므로 문장 성분이 다르다.

NoteBase

문 2.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만 나열한 것은?

① 새까맣다 – 싯퍼렇다 – 샛노랗다

② 시뻘겋다 – 시허옇다 – 싯누렇다

③ 새퍼렇다 – 새빨갛다 – 샛노랗다

④ 시하얗다 – 시꺼멓다 – 싯누렇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뻘겋다'와 '허옇다'에는 음성 모음에 맞는 **'시-'**가 붙고, '누렇다'에는 첫소리 ㄴ과 음성 모음에 맞는 **'싯-'**이 붙는다. 따라서 '시뻘겋다·시허옇다·싯누렇다'는 모두 바른 표기이다.

공통 해설

색채 형용사에 붙어 '매우 짙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새-/시-/샛-/싯-'은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와 첫 음절의 모음**에 따라 구별한다. 첫소리가 된소리·거센소리·ㅎ이면 '새-/시-'를, ㄴ 같은 울림소리이면 '샛-/싯-'을 붙인다. 이때 첫 음절의 모음이 ㅏ·ㅗ 같은 양성 모음이면 '새-/샛-', ㅓ·ㅜ 같은 음성 모음이면 '시-/싯-'을 쓴다.

'까맣다'와 '빨갛다'는 된소리로 시작하고 첫 음절 모음이 ㅏ이므로 '새까맣다·새빨갛다'로 쓴다. '꺼멓다'와 '뻘겋다'는 된소리로, '퍼렇다'는 거센소리로, '허옇다'는 ㅎ으로 시작하며 첫 음절 모음이 모두 ㅓ이므로 '시꺼멓다·시뻘겋다·시퍼렇다·시허옇다'로 쓴다.

'노랗다'와 '누렇다'는 모두 ㄴ으로 시작하므로 '샛-/싯-'이 붙는다. 다만 '노랗다'의 첫 음절 모음은 ㅗ이므로 **'샛노랗다'**, '누렇다'의 첫 음절 모음은 ㅜ이므로 **'싯누렇다'**로 구별한다. 따라서 '시뻘겋다·시허옇다·싯누렇다'는 이 접두사 결합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싯퍼렇다'와 '새퍼렇다'는 **'시퍼렇다'**로 고쳐야 한다. '퍼렇다'의 ㅍ 앞에는 '싯-'이 붙지 않으며, 첫 음절 모음 ㅓ에는 '새-'가 아닌 '시-'가 어울린다. '시하얗다'는 '하얗다'의 첫 음절 모음이 ㅏ이므로 **'새하얗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3. <보기>는 시의 일부분이다. 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한자어는?

<보기>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단단한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테니스에 미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유에프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 중략 -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① 편견(偏見)
② 불화(不和)
③ 오해(誤解)
④ 독선(獨善)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마지막 구절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믿음 자체도 되돌아보게 한다.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한 가지 기준으로 단순하게 재단하는 **치우친 관점**을 드러내므로 '편견'이 시의 제목에 어울린다.

NoteBase

핵심 풀이

시에서는 신념, 말수, 음식 취향, 운동에 대한 관심 등을 기준으로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반복하여 나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제시한다. 앞에서 사용한 구분 방식을 다시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 **사람을 두 부류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다는 믿음**을 되돌아보게 한다.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눈 결과만으로는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편견(偏見)'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 이 시에서는 사람의 복잡한 면모를 단순한 구분에 가두는 관점과 연결된다. '불화(不和)'는 서로 화목하지 못함을, '오해(誤解)'는 뜻이나 사실을 잘못 이해함을, '독선(獨善)'은 자기만 옳다고 믿고 행동함을 뜻한다. 시의 중심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나 특정 사실의 잘못된 이해, 자기 주장만 옳다는 태도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구분 방식의 한계**에 있으므로, '편견'이 가장 적절한 제목이다.

NoteBase

문 4. 서로 의미가 유사한 속담과 한자성어를 짝지은 것이다. 관련이 없는 것끼리 묶은 것은?

① 원님 덕에 나팔 분다 - 狐假虎威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晩時之歎

③ 언 발에 오줌 누기 - 雪上加霜

④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 目不識丁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언 발에 오줌 누기'는 **당장의 효과만 있는 임시방편**을 뜻한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은 **어려운 일에 또 다른 어려움이 겹침**을 뜻하므로 두 표현의 중심 의미가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O: '원님 덕에 나팔 분다'는 남의 덕으로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거나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다. '호가호위(狐假虎威)'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말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뜻한다. 두 표현은 **남의 힘이나 덕에 기대어 혜택이나 위세를 누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유사하다.

② O: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야 손을 쓰는 경우를 이른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알맞은 때를 놓친 것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다. 두 표현은 **때를 놓쳐 뒤늦게 대처하거나 한탄함**이라는 점에서 연결된다.

③ X: '언 발에 오줌 누기'는 잠깐 따뜻해져도 곧 다시 얼듯이, **당장 효과만 있을 뿐 오래가지 못하는 임시방편**을 뜻한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더해진다는 말로, 어려운 일이나 불행이 거듭 겹침을 뜻한다. 따라서 임시방편과 불행의 중첩을 짝지은 것은 의미가 맞지 않는다. '설상가상'에 어울리는 속담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④ O: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기역자 모양의 낫을 보고도 기역자를 모를 만큼 무식하다는 뜻이다. '목불식정(目不識丁)'은 고무래 정(丁) 자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로, 글자를 전혀 모름을 뜻한다. 두 표현 모두 **글자를 모를 정도로 무식함**을 나타낸다.

NoteBase

문 5. <보기>의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닌 것은?

한글 중 초성자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로 구분된다. 기본자는 조음 기관의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다.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한 것으로, 획을 더할 때마다 그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는 세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체자는 획을 더한 것은 가획자와 같지만 가획을 해도 소리의 세기가 세어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① ㄹ

② ㄷ

③ ㅂ

④ ㅊ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ㄹ은 기본자에 획을 더했어도 소리의 세기가 세어지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이체자**이다.

공통 해설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의 세기가 세어짐**을 나타낸 글자이다. 획을 더했다는 모양상의 특징만으로 가획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ㄴ → ㄷ', 'ㅁ → ㅂ', 'ㅅ → ㅈ → ㅊ'은 획을 더하여 소리의 세기가 세어짐을 나타내는 관계이므로 ㄷ · ㅂ · ㅊ은 가획자이다. 반면 ㄹ은 기본자 ㄴ에 획을 더했지만, 소리가 세어진다는 가획의 뜻이 없는 **이체자**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6. 외래어 표기 용례로 올바른 것은?

① dot - 다트

② parka - 파카

③ flat - 플래트

④ chorus - 코루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parka'는 이미 굳어진 관용을 존중하여 **'파카'**로 적는다. 외래어 표기에서는 발음에 따른 원칙뿐 아니라 인정된 관용 표기도 따른다.

선지별 해설

① X: 'dot'의 바른 표기는 **'도트'**이다. 점을 뜻하는 이 단어는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기에 따라 적으므로 '다트'로 적지 않는다.

② O: 'parka'는 후드가 달린 짧은 외투 등을 이르는 말로, 바른 표기는 **'파카'**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이미 굳어진 외래어의 관용을 존중하며, '파카'도 이러한 관용 표기에 해당한다.

③ X: 'flat'은 **'플랫'**으로 고친다. 짧은 모음 [æ] 다음에 오는 어말 무성 파열음 [t]는 받침 'ㅅ'으로 적는다. 따라서 끝에 '으'를 붙여 '플래트'로 적지 않는다.

④ X: 'chorus'는 **'코러스'**로 고친다. 영어 발음에서 두 번째 음절의 모음 [☒]는 '어'로 옮기므로, 철자 'u'를 그대로 '우'로 읽어 '코루스'라고 적는 것은 잘못이다.

NoteBase

문 7. <보기>의 ㉠~㉣을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다락골
㉡ 국망봉
㉢ 낭림산
㉣ 한라산

① ㉠ – Dalakgol
② ㉡ – Gukmangbong
③ ㉢ – Nangrimsan
④ ㉣ – Hallasan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한라산'은 유음화가 일어나 **[할라산]**으로 발음된다. 이때 이어지는 두 'ㄹ'을 **ll**로 적으므로 'Hallasan'으로 표기한다.

선지별 해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자음 동화는 표기에 반영하지만, 된소리되기는 반영하지 않는다.

① X: ㉠ '다락골'의 '라'에서 ㄹ은 모음 앞에 있으므로 **l이 아니라 r**로 적는다. 따라서 'Dalakgol'을 'Darakgol'로 고쳐야 한다. 발음은 [다락꼴]이지만,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골'은 gol로 적는다.

② X: ㉡ '국망봉'은 받침 ㄱ이 뒤의 비음 ㅁ에 동화되어 **[궁망봉]**으로 발음된다. 이 변화를 반영하여 받침의 [ㅇ]을 ng로 적으므로, 'Gukmangbong'을 'Gungmangbong'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낭림산'은 받침 ㅇ 뒤의 ㄹ이 [ㄴ]으로 바뀌어 **[낭님산]**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림'을 rim이 아니라 nim으로 적어야 하므로, 'Nangrimsan'을 'Nangnimsan'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한라산'은 ㄴ이 뒤의 ㄹ에 동화되는 유음화가 일어나 [할라산]으로 발음된다. **이어지는 두 ㄹ은 ll**로 적으므로 'Hallasan'으로 표기한다. 산 이름은 자연 지물명이므로 붙임표 없이 붙여 쓰고, 고유 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는다.

NoteBase

문 8. <보기>는 황진이가 지은 시조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끼리 짝지은 것은?

<보기>

冬至ㅅ둘 기나긴 밤을 한 (㉠)를 버혀 내여
(㉡) 니불 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① ㉠: 허리, ㉡: 春風

② ㉠: 허리, ㉡: 秋風

③ ㉠: 머리, ㉡: 春風

④ ㉠: 머리, ㉡: 秋風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기나긴 밤의 **'허리'를 베어 낸다**는 상상으로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한다. **'春風(춘풍)'**은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의 이미지를 만들어 임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낸다.

빈칸별 해설

㉠ 허리: '한 허리를 버혀 내여'는 긴 밤의 가운데 한 부분을 베어 낸다는 뜻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잘라서 보관하고 펼칠 수 있는 사물**처럼 표현한 것이다. 혼자 보내는 긴 밤의 일부를 간직했다가 임이 오는 날 밤에 펼쳐,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빈칸에는 '머리'가 아니라 '허리'가 들어간다.

㉡ 春風: '春風'은 춘풍, 곧 봄바람이다. '춘풍 니불'은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을 뜻한다. 그 아래에 밤을 '서리서리' 감아 넣었다가 임이 오면 '구뷔구뷔' 펴겠다는 표현이 이어진다. '秋風(추풍)'은 가을바람으로, 이 작품에서 이불의 따뜻함을 나타내는 말은 '春風'이다.

㉠의 '허리'와 ㉡의 '春風'을 짝지은 선택지는 ①이다.

NoteBase

문 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이 꺼져 간다.

② 그 사람은 잘 아는척한다.

③ 강물에 떠내려 가 버렸다.

④ 그가 올 듯도 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떠내려가다'는 **한 단어인 합성 동사**이므로 '떠내려 가'로 나눌 수 없다. 뒤의 보조 동사 '버리다'는 띄어 써서 **'떠내려가 버렸다'**로 고친다.

선지별 해설

① O: '간다'는 불이 꺼지는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보조 용언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꺼져 간다'로 쓴다. '-어' 뒤의 보조 용언이므로 '꺼져간다'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② O: '척하다'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꾸밈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관형사형 '아는' 뒤에서 쓰였으므로 '아는 척한다'가 원칙이지만, **'아는척한다'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③ X: '떠내려가다'는 물 위에 떠서 물결을 따라 옮겨 간다는 뜻의 한 단어인 합성 동사이다. 따라서 '떠내려 가'로 나누지 않고 **'떠내려가'**로 붙여 쓴다. 또한 앞말이 이처럼 합성 동사인 경우에는 뒤의 보조 동사 '버리다'를 띄어 써야 하므로, 문장 전체는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로 고친다.

④ O: '올 듯하다'에서는 '올듯하다'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올 듯도 하다'는 '듯' 뒤에 **조사 '도'가 끼어든 구성**이다. 이 경우에는 '올'과 '듯도', '하다'를 각각 띄어 쓴다. 조사 '도'는 앞말 '듯'에 붙인다.

NoteBase

문 10. 맞춤법 사용이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웃어른, 사흗날, 베갯잇

② 닐리리, 남존녀비, 헤택

③ 적잖은, 생각건대, 하마터면

④ 홑몸, 밋밋하다, 선율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닐리리·남존녀비·헤택'은 각각 **'늴리리·남존여비·혜택'**으로 적는다. '늴리리'와 '혜택'은 발음에 따라 모음 표기를 바꾸지 않으며, '남존여비'는 합성어 뒷말에도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웃어른'은 아래·위의 대립이 없는 말이므로 '윗-'이 아닌 '웃-'을 쓴다. '사흗날'은 '사흘'과 '날'이 결합하면서 끝소리 'ㄹ'이 'ㄷ'으로 바뀐 것을 반영하여 적는다. '베갯잇'은 '베개'와 '잇'의 합성어로, 두 말 사이에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② X: 세 단어가 모두 잘못 표기되었다. '닐리리'는 **'늴리리'**로 고친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의 'ㅢ'가 'ㅣ'로 소리 나더라도 표기는 'ㅢ'로 유지한다. '남존녀비'는 '남존여비'로 고친다. '남존'과 '여비'가 결합한 구조이므로 **뒷말의 첫머리에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녀'를 '여'로 적는다. '헤택'은 '혜택'으로 고친다. '혜'의 'ㅖ'가 'ㅐ'로 소리 나더라도 표기는 'ㅖ'로 유지한다.

③ O: '적잖은'은 '적지 않은'이 줄어든 말로, '-지 않-'이 줄면 '-잖-'으로 적는다. '생각건대'는 '생각하건대'에서 'ㄱ' 받침 뒤의 **'하'가 통째로 줄어든** 형태이므로 '생각컨대'로 적지 않는다. '하마터면'은 '조금만 잘못하였더라면'이라는 뜻의 부사로, 소리대로 '하마터면'으로 적는다.

④ O: '홑몸'은 '하나인, 혼자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홑-'이 결합한 말로, 딸린 사람이 없는 혼자의 몸이나 아이를 배지 아니한 몸을 뜻한다. '밋밋하다'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을 같은 글자로 적는 원칙에 따른 표기이다. '선율'은 **'ㄴ' 받침 뒤의 'ㄹ'을 'ㄹ'로** 적는 규칙에 따른다.

NoteBase

문 11. <보기>의 설명에 따라 올바르게 표기된 경우가 아닌 것은?

<보기>
·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① 섭섭지
② 흔타
③ 익숙치
④ 정결타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익숙하지'는 '하' 앞 받침이 'ㄱ'이므로 **'하' 전체가 줄어든다**. 따라서 준말은 '익숙치'가 아니라 **'익숙지'**로 적는다.

공통 해설

어간 끝의 '하'가 줄어든 말을 적을 때는 **'하' 바로 앞 받침의 소리**를 기준으로 줄어드는 방식을 구분한다. 받침 소리가 [ㄱ, ㄷ, ㅂ]이면 '하' 전체가 없어지고, 그 밖의 경우에는 'ㅏ'만 없어져 남은 'ㅎ'이 뒤의 첫소리와 결합한다. 이때 'ㅎ'과 'ㄱ·ㄷ·ㅈ'이 결합하면 각각 거센소리 'ㅋ·ㅌ·ㅊ'이 된다.

'섭섭하지'와 '익숙하지'는 '하' 앞의 받침 소리가 각각 [ㅂ], [ㄱ]이다. 따라서 **'하' 전체를 줄여** 각각 '섭섭지', '익숙지'로 적는다. '익숙치'는 남지 않아야 할 'ㅎ'을 남겨 'ㅈ'과 결합시킨 표기이므로 '익숙지'로 고쳐야 한다.

'흔하다'와 '정결하다'는 '하' 앞 받침이 각각 울림소리인 'ㄴ', 'ㄹ'이다. 따라서 **'ㅏ'만 줄고 'ㅎ'은 남아** 뒤의 'ㄷ'과 결합하여 'ㅌ'이 된다. 이에 따라 '흔하다 → 흔타', '정결하다 → 정결타'로 적는다.

NoteBase

문 12. <보기 1>의 사례와 <보기 2>의 언어 특성이 가장 잘못 짝지어진 것은?

<보기 1>
(가) '방송(放送)'은 '석방'에서 '보도'로 의미가 변하였다.
(나)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밥'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
(다)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낸다.
(라)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어에서는 '오늘[오늘]', 영어에서는 'today(투데이)'라고 한다.

<보기 2>
㉠ 규칙성
㉡ 역사성
㉢ 창조성
㉣ 사회성

① (가) - ㉡
② (나) - ㉣
③ (다) - ㉢
④ (라) - ㉠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라)에서 같은 의미를 한국어와 영어가 서로 다른 말소리로 나타내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 준다.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뜻이며, 일정한 문법 질서를 따르는 규칙성과는 다르다.

NoteBase

대응 관계 해설

(가) - ㉡ 역사성: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소리나 의미 등이 달라진다. '방송(放送)'의 의미가 '석방'에서 '보도'로 변했다는 사례는 **시간에 따른 의미 변화**를 보여 주므로 역사성에 대응한다.

(나) - ㉢ 사회성: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언어 공동체의 약속으로 유지된다. '밥'을 뜻하는 말소리를 개인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그 뜻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이 언어의 약속을 임의로 바꿀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다) - ㉣ 창조성: 언어 사용자는 배운 표현과 규칙을 활용하여 이전에 배우지 않은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아이가 '종이가 찢어졌어'를 바탕으로 '책이 찢어졌어'를 만드는 것은 **배운 표현을 활용한 새 문장 생성**이므로 창조성에 대응한다.

(라) - 자의성: 같은 '오늘'이라는 의미를 한국어에서는 '오늘[오늘]', 영어에서는 'today(투데이)'라는 서로 다른 말소리로 나타낸다. 이는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을 보여 준다. ㉠ 규칙성은 단어나 문장을 구성할 때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특성이므로 이 사례에 가장 잘 맞는 설명이 아니다.

따라서 ④의 '(라) - ㉠'은 자의성을 보여 주는 사례를 규칙성과 연결한 잘못된 짝이다.

NoteBase

문 13. <보기>의 밑줄 친 시어를 현대어로 옮길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매운 계절의 ㉠ 챗죽에 갈겨
㉡ 마츰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 그우에서다

어데다 무릎을 꾸러야하나?
한발 ㉣ 재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깜아 생각해볼밖에
겨울은 강철로된 무지갠가보다

- 이육사, 「절정」 -

① ㉠ : 채찍
② ㉡ : 마침내
③ ㉢ : 그 위
④ ㉣ : 재껴 디딜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의 '재겨디딜'은 현대어로 **'제겨디딜'**이며, 발끝이나 발뒤꿈치만 땅에 대어 디딜 것을 뜻한다. '재껴 디딜'로 옮기면 이러한 뜻을 살리지 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챗죽'은 현대어의 **'채찍'**에 해당한다. 뒤의 '갈겨'와 연결되어 매운 계절이 채찍으로 때리는 듯한 고통을 나타낸다.

② O: ㉡ '마츰내'는 현대 표기로 **'마침내'**이다. 끝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게 되었다는 뜻으로,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다.

③ O: ㉢ '그우'는 **'그 위'**에 해당한다. '그우에서다'는 '그 위에 서다'로 옮기며, 서릿발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 위에 선 상황을 나타낸다.

④ X: ㉣ '재겨디딜'은 **'제겨디딜'**로 옮긴다. '제겨디디다'는 발끝이나 발뒤꿈치만 땅에 대어 디디는 것을 뜻하는 한 단어이다. 따라서 '재껴 디딜'로 나누어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시행은 발끝이나 발뒤꿈치만으로라도 디딜 자리조차 없는 극한 상황을 드러낸다.

NoteBase

문 14.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① 옷 색깔이 아주 밝구나!

② 이 분야는 전망이 아주 밝단다.

③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다.

④ 그는 예의가 밝은 사람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날이 밝는'의 '밝다'는 밤이 지나고 새날이 오는 **변화·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나머지 문장의 '밝다'는 색깔, 전망, 예의에 관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선지별 해설

같은 기본형 '밝다'라도 문맥에서 상태·성질을 나타내면 형용사이고, 새날이 오는 변화·작용을 나타내면 동사이다. 각 문장에서의 의미와 활용을 함께 비교한다.

① '밝구나' — 형용사: 옷 색깔이 환하고 산뜻한 **상태**를 나타낸다. 형용사 어간 '밝-'에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구나'가 붙었다.

② '밝단다' — 형용사: 이 분야의 앞날에 희망이 있고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전망이 좋다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③ '밝는' — 동사: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는 **변화·작용**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 '밝-'에 현재의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 뒤의 '대로'를 꾸민다.

④ '밝은' — 형용사: 예의를 잘 알고 있다는 상태를 나타낸다. 형용사 어간 '밝-'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어 '사람'을 꾸민다.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밝은'과 동사의 현재 관형사형인 **'밝는'을 구별**해야 한다.

①·②·④의 '밝다'는 형용사이고, ③의 '밝다'는 동사이므로 품사가 다른 것은 '날이 밝는'의 '밝는'이다.

NoteBase

문 15. <보기>의 ( )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보기>
지난여름 작가 회의에서 북한 동포 돕기 시 낭송회를 한 적이 있다. 시인들만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각계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나한테도 한 편 낭송해 달라고 했다. 내가 (㉠) 소리를 듣게 된 것이 당혹스러웠지만, 북한 돕기라는 데 핑계를 둘러대고 빠질 만큼 빤질빤질하지는 못했나 보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아니었을까.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 김용택은 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의 한 사람일 뿐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는 말 못 하겠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네 집'이 그의 많은 시 중 빼어난 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① ㉠: 원로, ㉡: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게

② ㉠: 아쉬운, ㉡: 서로가 만족하게 될 실리가

③ ㉠: 시인, ㉡: 잠깐의 수고로 동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④ ㉠: 입에 발린, ㉡: 원로들에 대한 예의가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각계 원로들도 낭송한다며 글쓴이에게 참여를 부탁했으므로, 글쓴이가 듣게 된 호칭은 **'원로'**이다. 북한 동포 돕기라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개인적 동기는 당시 마음을 사로잡은 **시를 낭송하고 싶은 마음**이다.

빈칸별 해설

㉠ '원로': 앞에서 시인뿐 아니라 '각계 원로들'도 애송시를 낭송한다고 한 뒤 글쓴이에게도 참여를 요청했다. 따라서 글쓴이는 자신도 **원로로 불리게 된 것**에 당혹감을 느낀 것이다. '시인'은 글쓴이에게 참여를 권한 맥락을 제대로 잇지 못하며, '아쉬운 소리'나 '입에 발린 소리'를 들었다고 볼 만한 부탁이나 칭찬도 제시되지 않았다.

㉡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게': '그러나'는 북한 동포 돕기라는 공적인 명분과 그보다 더 중요한 동기를 대비한다. 바로 다음에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했으므로, 그 동기는 **마음에 든 시를 낭송하고 싶은 개인적 욕구**이다. '잠깐의 수고로 동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앞서 말한 북한 돕기라는 명분을 되풀이하므로 이 대비를 살리지 못한다. 서로 얻을 실리나 원로들에 대한 예의가 더 중요했다는 근거도 없다.

㉠에는 '원로', ㉡에는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게'가 들어가며, 이 조합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보기>의 밑줄 친 어휘들 가운데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보기>
불문곡직하는 직설은 사람을 찌른다. 깜짝 놀라게 해서 제압하는 방식이다. 거기 비해 완곡함은 뜸을 들이면서 에두른다. 듣고 읽는 이가 비켜갈 틈을 준다. 그렇다고 완곡함이 곡필인 것도 아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화자와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준다. 곱씹어볼 말이 사라지고 상상의 여지를 박탈하는 글이 군림하는 세상은 살풍경하다. 말과 글이 세상을 따라갈진대 세상을 갈아엎지 않고 말과 글이 세상과 함께 아름답기는 난망한 일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막힐수록 옛것을 더듬으라고 했다.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세상에서 다산은 선인들이 왜 산을 바라보며 즐기되 그 흥취의 반을 항상 남겨두는지 궁금했다. 그는 미인을 만났던 사람이 적어놓은 글에서 그 까닭을 발견했다. 그가 본 글은 이러했다. '얼굴은 아름다웠으나 그 자태는 기록하지 않았다.'

① 틈
② 공간
③ 여지
④ 세상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사회**를 뜻한다. 글을 읽는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여유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다른 어휘들과 의미가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틈': '듣고 읽는 이가 비켜갈 틈'은 직설적인 말에 일방적으로 제압당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말을 받아들이거나 반응할 수 있는 여유를 뜻한다. 실제로 벌어진 틈새가 아니라 **듣는 이에게 남겨 둔 심리적 여유**이다.

② '공간': '화자와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화자가 뜻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독자가 해석에 참여하며 서로 뜻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유를 뜻한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소통과 해석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③ '여지': '상상의 여지'는 글에 모든 내용을 드러내지 않아 독자가 스스로 상상할 수 있도록 남겨 둔 여유를 뜻한다. '틈', '공간'과 마찬가지로 **독자의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여유**를 나타낸다.

④ '세상':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세상'은 사물의 모습과 사람들의 정이 서로 극단으로 갈라지는 현실 사회를 가리킨다. 앞의 세 어휘가 독자에게 남겨 둔 해석과 상상의 여유를 뜻하는 데 비해,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사회 자체**를 뜻하므로 문맥적 의미가 다르다.

NoteBase

문 17. <보기>의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
라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① 물화된 도시의 삶이 만든 비정함, 절망감, 권태 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

② 주인공들은 자기 지위나 이름을 버린 익명적 존재로 기호화되어 있다.

③ 잠은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환기하는 매개체다.

④ 화투는 절망과 권태를 견디는 의미 없는 놀이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꿈도 안 꾸고 잘 잤다'는 서술은 **타인의 고독을 외면한 채 자기 안으로 물러나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때의 잠을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물화된 삶은 인간이 인격적 관계의 주체로 존중받기보다 사물처럼 취급되는 삶을 뜻한다. 혼자 있기 싫다는 아저씨의 호소에도 '안'과 '나'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각자의 방에 들어간다. 이처럼 **타인의 고독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과 피로에 젖은 태도에서 도시인의 비정함과 절망감, 권태를 읽을 수 있다.

② O: 인물들은 구체적인 이름 대신 '나', '안', '아저씨'로 불린다. 또한 '나'는 숙박계에 이름·주소·나이·직업을 모두 거짓으로 적어 자신의 신원을 감춘다. 이는 인물의 구체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흐리고 **익명적 존재**라는 성격을 드러낸다.

③ X: '나'는 아저씨가 혼자 있기 싫다고 했는데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꿈도 꾸지 않은 채 잘 잔다. 이 장면에서 잠은 **타인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현실의 고독을 외면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현실을 넘어선 이상적 삶을 꿈꾸거나 갈망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이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④ O: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라는 제안은 뚜렷한 목적을 추구하기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말이다. 여기서 화투는 고독이나 절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권태를 잠시 달래는 소일거리**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절망과 권태를 견디는 의미 없는 놀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NoteBase

문 18.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은 시조는?

<보기>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환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현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① 십년 ᄀᆞ온 칼이 갑리(匣裏)에 우노ᄆᆡ라.
관산(關山)을 ᄇᆞ라보며 ᄯᅢ때로 ᄆᆞᆫ져 보니
장부(丈夫)의 위국공훈(爲國功勳)을 어ᄂᆡ ᄯᅢ에 드리올고.

② 구곡(九曲)은 어드ᄆᆡ고 문산(文山)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속에 뭇쳣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안이ᄒᆞ고 볼ᄲᅥᆺ업다 ᄒᆞ드라.

③ 강호(江湖)에 겨월이 드니 눈 기픠 자히 남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히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④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봬.
고인을 못 봐도 녀든 길 알픠 잇ᄂᆡ.
녀든 길 알픠 잇거든 아니 녀고 엇졀고.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밑줄 친 부분은 **성현의 가르침을 믿고 한결같이 탐구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이는 옛 성현을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 배우겠다는 시조의 뜻과 통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밑줄 친 부분의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은 성현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배움에 전념하라는 뜻이다. 각 시조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이 기준과 비교한다.

①: 오랫동안 갈아 온 칼을 보며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울 때를 기다린다. '위국공훈'은 **나라를 위한 공훈을 이루려는 포부**를 드러낸다. 성현의 가르침을 믿고 배우려는 태도와는 중심 내용이 다르다.

②: 한 해가 저무는 문산에서 기암괴석이 눈에 묻히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모습을 그린다. **눈 덮인 자연의 풍경과 적막한 분위기**가 중심이며, 성현의 가르침을 탐구하려는 의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③: 겨울의 강호에서 삿갓과 누더기 옷으로 지내면서도 춥지 않은 것을 임금의 은혜로 여긴다. 자연 속 삶의 만족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러낸다. 가르침을 믿고 학문에 힘쓰라는 내용과 구별된다.

④: '고인'은 본받고자 하는 옛사람을, 그들이 다닌 '길'은 그들의 삶과 가르침을 뜻한다. 서로 시대가 달라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옛사람이 남긴 길은 앞에 있으므로, 그 길을 따르겠다는 뜻이다. 마지막의 '아니 녀고 엇졀고'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어찌하겠느냐는 말로, **옛 성현의 길을 따르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성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배움을 이어 가려는 점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깝다.

NoteBase

문 19.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 '쇠항아리'와 의미가 통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中 -

① 조국아/한번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남의 발톱에 주어본 적/없었나니(「조국」 中)
② 아사달과 아사녀가/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부끄럼 빛내며/맞절할지니(「껍데기는 가라」 中)
③ 꽃피는 반도는/남에서 북쪽 끝까지/완충지대(「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中)
④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봄은 발병 났다커니/봄은 위독하다커니(「봄의 소식」 中)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쇠항아리'는 사람들이 참된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구속과 억압**을 상징한다. '남의 발톱'도 조국과 민중을 위협하는 외부의 폭력적 힘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통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보기>에서 '쇠항아리'는 사람들의 머리를 덮어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한다. 화자가 이를 '찢어라'라고 한 것은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각 시어가 이러한 억압을 나타내는지, 그와 반대로 추구하는 가치를 나타내는지 비교해야 한다.

① '발톱': '남의 발톱'에 '우리의 심장'을 준다는 것은 민족의 생명과 자주성을 외부의 폭력적 힘에 내맡기는 상황을 뜻한다. 따라서 '발톱'은 **민족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세력**을 나타낸다. 그런 적이 '없었나니'라는 표현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드러난다.

② '초례청': 본래 혼례를 치르는 곳이다.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에서 맞절하는 모습은 이념의 대립을 넘어 민족이 하나가 되는 **화해와 결합의 공간**을 보여 준다. 제거해야 할 억압의 대상과는 의미가 다르다.

③ '완충지대': '꽃피는 반도'가 '남에서 북쪽 끝까지' 완충지대가 된다는 것은 대립과 무력 충돌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분단을 고착하는 장벽이 아니라 **평화가 실현된 공간**이라는 긍정적 의미이다.

④ '봄':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희망의 시대를 상징한다. '발병 났다', '위독하다'라는 말은 그러한 시대가 오기 어렵다는 우려를 드러낸다. **위기에 놓인 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병들었다는 서술만 보고 '봄' 자체를 억압적 대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네 시어 가운데 '발톱'이 '쇠항아리'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억누르는 부정적 힘을 나타낸다.

NoteBase

문 20.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현행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단, ‘:’은 장모음 표시임.)

① 비가 많이 내려서 물난리가 났다. - 물난리[물랄리]

② 그는 줄곧 신문만 읽고 있었다. - 신문[심문]

③ 겨울에는 보리를 밟는다. - 밟는다[밤:는다]

④ 날씨가 벌써 한여름과 같다. - 한여름[한녀름]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신문'의 받침 'ㄴ'을 뒤의 'ㅁ'에 맞추어 [ㅁ]으로 바꾸는 **조음 위치 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문]이 아니라 **[신문]**으로 발음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물난리'에서는 '난'의 첫소리 'ㄴ'과 받침 'ㄴ'이 각각 앞뒤의 'ㄹ'에 동화되어 [ㄹ]로 바뀐다. 이처럼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하며, 이에 따라 [물랄리]로 발음한다.

② X: '신문'의 표준 발음은 **[신문]**이다. [심문]은 받침 'ㄴ'이 뒤의 두 입술소리 'ㅁ'의 영향을 받아 같은 조음 위치의 [ㅁ]으로 바뀐 발음이다. 이러한 조음 위치 동화는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받침 'ㄴ'을 그대로 발음해야 한다.

③ O: '밟-'은 자음 앞에서 겹받침 'ㄻ'의 'ㄹ'이 탈락하여 [밥:]으로 발음된다. 이어서 받침 'ㅂ'이 뒤의 'ㄴ' 앞에서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밥:는다]를 거쳐 [밤:는다]로 발음한다. 이때 첫음절의 모음은 길게 발음한다.

④ O: '한여름'은 접두사 '한-'과 명사 '여름'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앞의 접두사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 단어가 '여'로 시작하므로, 두 요소의 경계에서 **'ㄴ'이 첨가**되어 [한녀름]으로 발음한다.

NoteBase